

글로벌 혼합금융 트렌드와 한국의 개발협력 발전 방향

개발금융연구센터 개발금융팀
이 단 비 (dblee@kdb.co.kr)

- ◆ 글로벌 공적개발원조 급감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요 공여국과 MDB는 지분투자·사회적 채권 등 민간 자본 유인을 위한 혁신적 혼합금융을 전면 확대
- ◆ 한국 정부는 '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'을 통해 ODA와 개발금융을 연계한 개발금융 체계를 구축하고, 민간 참여를 극대화하여 새로운 개발자원 조달 체계를 추진

□ 국제개발자원 부족 심화와 혼합금융의 부상

- 최근 주요 공여국들의 공적개발원조(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, ODA) 지원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국제개발 자원 부족이 심화되어,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민간 자원 동원을 촉진하는 혼합금융의 역할이 부각
 - ODA 지원규모는 '23년 2,280억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감소 추세이며, '25년 지원규모는 1,743억 달러*로 전년대비 19% 감소
 - * 주요 국가 ODA 지원실적(억 달러) 및 전년대비 감소폭: 미국 290(△55.8%), 독일 291(△11.4%), 영국 172(△4.5%), 일본 162(△1.7%), 프랑스 145(△5.9%) 등
 - '25년 제4차 국제개발재원회의(FfD4)*는 지속가능발전목표(Sustainable Development Goals, SDG) 달성 부족액이 연간 4.3조 달러 이상이며, 기존의 ODA 방식만으로는 SDG 달성이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인정
 - * 국제개발재원회의(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, FfD): UN 주도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(SDG) 달성에 필요한 자원의 마련 및 운용에 대해 논의하는 최고위급 국제회의
 - 이에 따라 주요 공여국들은 '25년 제54차 OECD DAC 고위급회의를 통해 민간 자원 동원을 위한 투자 촉매제로서 혼합금융*의 적극적 활용을 강력히 권고
 - * 안정성이 높은 ODA 자금과 민간 자본을 섞어(Blend), 리스크가 큰 개도국의 경제·사회적 이슈에 투자하는 방식

□ 최근 주요국 DFI 및 MDB의 민간 자본 유인을 위한 개발금융 혁신 사례

- 주요국 DFI*와 MDB**는 기존의 보수적인 대출 위주의 금융기법을 탈피하고, 자본 효율성 확대를 위해 전략적 지분투자, 자산유동화, 통합보증 등 다양한 혼합금융 방식을 추진 중

* DFI(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, 개발금융기관)는 개도국의 경제 성장 등을 목적으로 개도국의 민간 부문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특수목적기관으로, 대표적으로 미국의 DFC, 영국의 BII, 독일의 DEG 등이 존재

** MDB(Multilateral Development Bank, 다자개발은행)는 다수의 국가가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자하여 개도국 정부의 경제 발전과 공공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국제 금융기관으로, 대표적으로 WB, ADB, EBRD, AIIB 등이 있음

- (지분투자) '26년 3월 美 국제개발금융공사는 호주 시라리소스(Syrah Resources)의 지분을 20% 확보하고, 신규 자금 1,500만 달러를 자회사인 모잠비크 발라마 흑연 광산에 투입

* 이는 개별국 DFI가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지분 인수를 통해 주요 주주로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대표적 사례

- (자산유동화 및 리스크 분산) 최근 아시아개발은행(Asia Development Bank, ADB)은 협력국의 보증을 유동화하여 대출 여력을 최대 5배로 증가하는 혁신기후금융 기구를 출범시키는 등 리스크 분담 방식을 고도화
- (보증플랫폼 통합) 세계은행(World Bank, WB)은 자회사인 MIGA를 중심으로 보증 기능을 단일화하고, '26년 5월 ADB 등 타 MDB와의 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 절차 표준화 및 민간 자본 유입의 규모화를 주도

- 최근 DFI와 MDB는 혼합금융의 핵심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회적 채권을 적극 활용, 글로벌 자본시장의 민간 유동성을 개도국 지원으로 직접 연계

- WB 산하의 IFC는 국제자본시장협회(ICMA)의 사회적 채권 원칙에 맞춰 채권 발행 기준을 전면 개편하고, '25년 총 54억 달러의 사회적 채권을 발행
- '25년 9월 네덜란드 개발금융기관인 FMO는 5억 유로 규모 사회적 채권을 발행, 개별국 DFI로서 이례적으로 포용적 비즈니스 및 불평등 해소 등 사회적 어젠다 투자 추진
- ADB는 헝가리 포린트(HUF) 등 현지 통화 기반의 사회적 채권을 선도적으로 발행함으로써 환율 리스크를 완화한 혼합금융 구조를 설계

□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발전 방향

- 한국은 기존 ODA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는 글로벌 개발 수요 충족 등 기대 목표 달성이 어려워,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유동성을 유입시키는 혼합금융 기반의 재원조달 방안 모색 필요성 대두
- 한국 정부는 '26년 2월 발표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(2026-2030)을 통해, 개발금융 추진 및 민간 재원 동원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, 개발금융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중

한국의 개발금융 추진 과제 및 세부 내용

주요 추진 과제	세부 내용
개발금융 추진체계 구축	- 공적 자금을 마중물로 민간 재원 유입을 극대화하는 추진 전략 마련 - 글로벌 사우스 경제외교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 도구로 활용
금융 지원 방식의 고도화, 금융 지원 수단 다양화 및 패키지화	- 단순 대출 위주에서 지분투자, 보증 등으로 수단 다변화 - EDCF/EDPF/수출금융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강화
제안형(수요기반) ODA 도입	- 협력국 수요와 우리 민간 기업의 수요를 결합한 '공동기획형 사업' 발굴 -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민관 협의 체계 구축
민간 재원 유입 수단 다양화	- 대기업 ESG 펀드와 연계한 현지 투자 및 사업 참여 유도 - 시민사회 및 금융기관의 민간 재원 동원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검토
글로벌 DFI 및 MDB 협력	- 선진국 개발금융기관(DFI) 및 다자개발은행(MDB)과의 양자·다자 협력 강화 - MDB 내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 참여가 유리한 파이프 라인 구축

자료 : 국무조정실, "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(2026-2030)"

- 혼합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국내외 유관기관들의 협력 거버넌스를 체계화 하고, 신용보강·리스크 관리 등의 개발금융에 필수적인 금융 역량을 보유한 전문 인력 육성이 필요